

‘인천상륙작전’의 매체별 재현 양상으로 본 인천의 장소성 연구⁺

이은선* · 우정덕**

I. 서론

II. 맥아더의 인천: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

III. 지도와 지하실의 인천: 소설 『인천상륙작전』(2016)

IV. 파괴된 고향으로서의 인천: 웹툰과 단행본(2013~2014)

V. 결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매체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이라는 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논의하는 데 있다. 현대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중요성과 이 작전에서 인천의 지리적 여건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인천상륙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 해당 논문은 2020년도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 인천의 문화 및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신진연구자를 육성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다.

작전을 재현한 다양한 문화적 텍스트들이 생산되었고, 이러한 텍스트들을 분석한 연구 역시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적 동시대에 존재하는 매체별 텍스트에서 인천상륙작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재현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텍스트를 함께 살펴보지 않고 영화나 웹툰 등 하나의 매체, 하나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영화·소설·웹툰·출판 만화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각 매체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의 특징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인천상륙작전에 주목하기보다는 텍스트에 재현된 ‘인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¹⁾ 이를 통해 각 텍스트 내에서 인천에 살고 있던, 혹은 머물렀던, 그리고 인천에서 죽어간 주민들이 있었던 곳으로서 인천의 장소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과 소설 『인천상륙작전』(2016), 웹툰 <인천상륙작전>(2013), 해당 웹툰을 단행본화 한 『인천상륙작전』1~6권(2013~2014)이다. 이 텍스트들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이들 작품이 형상화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격과 이를 통해 담아낸 주제 의식이 대중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된 전환점이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대한민국 국토 그 자체를 상징할 정도로 중요한 공간이며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건설에 있어 시금석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작품들에서 바라보는 ‘인천상륙작전’은 그 성격이 각각 다르다. 예컨대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주적이며 위대한 헌신

1) ‘인천’이라는 공간에 주목하는 것은 이 논문의 방향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먼저 2016년에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이 그 이전의 영화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연구사를 검토함으로써 이전 영화의 특징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 만화 『인천상륙작전』에서 다루고 있는 ‘인천상륙작전’의 전사(前史)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철구’ 가족이 ‘인천’으로 돌아온 시점 이후에 집중한 결과 이전의 사건을 소략하게 다룬 측면이 있다.

을 강조하고자 하고, 웹툰과 만화 단행본에서는 작전 성공과 관련 없이 파괴되는 소시민 가족의 처절함을 그리고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려진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텍스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은 수용자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²⁾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에게서는 ‘한국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타자의 시선으로 ‘한국적인 것’을 승인받으려 하는 것이며, 유튜브에 만연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의 장점을 다룬 채널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 하겠다. 또 유명 아이돌 BTS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이 미국에 송출되는 모습에 대중은 열광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 아래 구국의 영웅으로서의 맥아더와 인천상륙작전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텍스트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일가족의 작은 역사에 주목하는 텍스트 모두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영화의 경우에는 자막을 통해서, 웹툰의 경우 역사적 자료 제시를 통해서, 만화의 경우 연표와 참고자료 제시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 무겁고 진지한 어조로 다가간다. 이 일련의 형식은 매우 많은 정보량을 전달하기 때문에 수용자 입장에서 힘겹게 따라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들이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예컨대 대중은 비록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올바르게 자국의 ‘역사’와 대면하고자 하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인천 이미지와 관련된 기존연구는 크게 영상 텍스트에 대한 연구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영상 텍스트에 나타난 ‘인천 이미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 백철현 · 김계

2) Kellner, Douglas, 『미디어 문화』, 김수정 · 정종희 역, 새물결, 2003, 439-444쪽.

원의 연구, 이현식의 연구, 그리고 김호연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백철현·김계원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 <패밀리>(2002), 드라마 <고양이를 부탁해>(2001), 영화 <파이란>(2001),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드라마 <북경만점>(1999) 등 5편을 분석하여 이들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항구, 자유공원, 판자촌, 유흥가, 갯벌, 공단, 화교촌 등 대략 7가지 장소를 분석³⁾하고 있다. 그리고 이현식은 대중가요의 가사와 함께 영화 <파이란>(2001)과 <고양이를 부탁해>(2001)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문화에 투영된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바다와 항구가 지니는 낭만성과, 수도권 주변부 도시로서의 팍팍하고 을씨년스러운 모습, 그리고 한국전쟁의 배경⁴⁾ 등의 성격을 가졌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김호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인천공항의 성공적 정착과 송도 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인천의 이미지가 고립되고 벗어나야 하는 공간에서 ‘힐링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⁵⁾

문학 텍스트와 관련해서는 오양호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가 있다. 먼저 인천이 작품의 배경이 된 소설인 정동수의 「수인선」,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이원규의 「까치산의 왕벌」을 고찰하여 이 소설들에서 ‘인천’이 1차적인 배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현장으로, 특히 현대에 와서는 민족의 고통과 삶의 애환이 가장 치열하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묘사⁶⁾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황해』, 「중국인 거리」, 『협궤열차』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황해』가 인천의 외상(外傷)이라면 「중국인 거리」는 그 내상(內傷)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텍스트가 인천의 역사적 사건을 탐색·비판·고발하는 한편 인천을 한국

3) 백철현·김계원, 「영상매체 속에 비쳐진 인천이미지를 통해 본 인천의 정체성 연구」, 『인천학연구』 2(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114쪽, 127쪽.

4) 이현식, 「대중문화에 나타난 인천 이미지 연구」, 『인천학연구』 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153쪽, 162쪽, 169쪽.

5) 김호연, 「대중영상매체를 통해 나타난 인천의 이미지 그리고 문화콘텐츠」,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4, 163쪽, 176쪽.

6) 오양호, 「상처받은 항구도시의 후일담—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인천’」, 『인천학연구』 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364쪽.

전쟁이라는 대재난 속에 대입시켜 동족상잔의 비극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⁷⁾ 이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의 배경이 인천이거나 등장인물이 인천과 관련된 홍명희의 『임거정』, 강영애의 『인간문제』, 김동석의 『해변의 시』, 『작고인천문인선집 2(소설)』을 선정하여 ‘문학지리학’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⁸⁾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는 인천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인천학’이 성립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주체의 문제, 인물의 문제, 문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원규의 『황해』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⁹⁾하였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상 텍스트들에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등장하는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와 함께 ‘인천’의 장소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인천’의 장소성을 형상화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지리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인천의 장소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중의 역사 인식과 장소 정체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을 다룬 텍스트 중 대중성을 확보한 최근의 텍스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현대의 문화 현상에 관한 참신한 시각과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특히 대상 텍스트 가운데 영화 〈인천상륙작전〉(이재한)은 2016도에 개봉하여 705만 관객이 관람하였고, 웹툰 〈인천상륙작전〉(2013)¹⁰⁾은 여러 군데에서 연재하였지만 가장 최

7) 오양호, 「인천학(仁川學)의 ‘문학지리학’적 접근」, 『인천학연구』 1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2, 246쪽.

8) 오양호, 「문학 속의 인천 심상, 그 문학지리학적 접근(2)」,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163쪽.

9) 오양호·양승모, 「한국 현대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인천」, 『인천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218쪽.

10) 웹툰 〈인천상륙작전〉은 한겨레신문에서 2013년 3월 30일부터 2014년 8월 23일까지 연재하였다. 네이트에서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연재를 시작하였으며 연재종료일은 미상이다. 2017년 2월 2일부터 다음웹툰에서 재연재를 시작했으며 2017년 10월 9일에 완결되었다. 인터넷 위키 사전인 〈나무위키〉에서는 티플레이에서도 연재를 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연재 일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인천상륙작전”, 나무위키, <https://namu.wiki/w/인천상륙작전>).

근의 연재처인 다음 웹툰만 보더라도 2017년 연재하면서 통합 약 3,850만 뷰를 달성하였고 별점은 1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하였다(2020년 12월 1일 기준).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텍스트가 현재 대중에게 호소력이 짙은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인천의 역사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천이라는 장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이다. 한국 전쟁 당시의 역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적일 뿐 아니라, 인천을 바라보는 텍스트의 시각 그리고 수용자의 시각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상 텍스트들의 안팎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의 충돌과 영향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¹⁾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인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I. 맥아더의 인천: 영화 〈인천상륙작전〉(2016)

맥아더에 덧씌워진 신화적 이미지¹²⁾는 전후 한국에서는 공고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유엔군이 북한군에 밀려 낙동강 방어선으로까지 후퇴하면서 수

wiki/w/%EC%9D%B8%EC%B2%9C%EC%83%81%EB%A5%99%EC%9E%91%EC%A0%84(%EC%9B%B9%ED%88%B0), 검색일: 2021.1.2.).

- 11)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소설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웹툰 〈인천상륙작전〉 및 단행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텍스트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이념적 차이는 충분히 고려된 바 있다. 이 명백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천’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그 차이가 덜 부각되었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 12) 최원식은 MacArthur의 발음이 맥아더가 아니라 머카서라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우리는 맥아더를 고집하는데, 그 이유는 마치 발음을 바꾸면 그 신화적 이미지가 탈각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다(최원식, 「자유공원을 다시 계획하자」,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5, 90쪽).

세에 물리게 되자 전세를 바꾸기 위해 계획된 것이 바로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었다.¹³⁾ 한국에서 더글러스 맥아더는 ‘천재 군인’¹⁴⁾으로 명명되고 전후 한국인들은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고 우상시한 결과 1957년 9월 15일 인천항을 굽어보는 만국공원에 그의 동상을 세웠다.¹⁵⁾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투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세를 단번에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상 못한,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기 때문이다.¹⁶⁾

상륙작전 입안자들과 고위 사령부에게 ‘인천’의 지리적 여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는 인천 바다의 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 이와 더불어 당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이 인천상륙 작전을 수행할 해병과 육군 병사들에게는 커다란 숙제¹⁷⁾였기 때문이었다. 맥아더의 영웅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회고하려는 시도에서는 당시 인천항을 지키는 수비 병력이 많지 않았고 상륙과정에서 큰 저항도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 믿기 힘들 정도로 손쉬운 승리¹⁸⁾였다고 본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텍스트에서 모두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 역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이 그동안 영화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영구동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운정은 한국 영화 <인천상륙작전>(1965)과 북한 영화 <월미도>(조경순, 1982)를 분석하였다. 그는 제작자에 따른 제작의도의 차이를 전제하고, 상륙

13)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214-215쪽.

14) 주치호, 『인천상륙작전秘史』, 오렌지연필, 2016, 223쪽.

15) 김진웅, 「맥아더 장군의 제2의 인천 상륙 작전: 동상을 둘러싼 분쟁의 함의」, 『역사교육논집』 39권, 역사교육학회, 2007, 416쪽.

16)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207쪽.

17) Rottman, Gordon L., 『인천 1950—한국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20세기 마지막 대규모 상륙작전』,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06, 35-36쪽.

18) Schaller, Michael, 『더글러스 맥아더』, 유강은 역, 이매진, 2004, 363쪽.

군 관점에서는 승리를 기념하는 스펙터클을 보여주지만, 방어군의 관점에서는 전사자들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¹⁹⁾ 김남혁은 미국에서 발표된 두 편의 영화 〈충돌 노선(Collision Course)〉(1976)과 〈전웅 맥아더(MacArthur)〉(1977), 할리우드의 제작 기술과 한국의 통일교 자본이 합쳐져 만들어진 작품 〈인천(Inchon)〉(Terence Young, 1982)과 북한 영화 〈월미도〉(조경순, 1982)를 분석하면서 데탕트라는 긴장 완화 정책들은 세계 질서에 대한 자국의 패권을 포기하거나 기왕의 힘을 반성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조는 네 편의 영화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형상화 됐다고 본다.²⁰⁾

강성률은 최근에 역사를 다룬 영화들의 좌우대립이 격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영화는 치열한 현실의 ‘싸움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제시장〉(윤제균, 2014), 〈연평해전〉(김학순, 2015),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 등이 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라면, 〈변호인〉(양우석, 2013), 〈암살〉(최동훈, 2015), 〈귀향〉(조정래, 2017), 〈택시 운전사〉(장훈, 2017) 등은 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가 되어 양 진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영화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분석 대상은 〈인천상륙작전〉(조궁하, 1965), 〈결사대작전〉(고영남, 1969), 〈아벤고 공수군단〉(임권택, 1982),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 등의 남한 영화, 〈월미도〉(조경순, 1982),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김유삼, 1984) 등의 북한 영화, 〈인천 Incheon〉(Terence Young, 1982)이라는 한미 합작영화이다.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영화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시기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가 변용되기 때문에 각 영화가 어떻게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지점이다.²¹⁾

19) 장윤정, 「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 『대한지리학회지』 제49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2014, 77쪽.

20)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더글라스 맥아더 혹은 인천상륙작전 관련 남한, 북한, 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4, 한국비평문학회, 2019, 36쪽.

21) 강성률,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남한, 북한, 한미 합작영화의 비교 연구: 전쟁 양상 재현

본고의 분석 대상인 영화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은 705만 명의 흥행을 달성한 대중적으로 매우 성공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과거 인천상륙작전 중 실재했던 대북 첩보작전 X-RAY 수행을 모티브로 하여, 인천에 투입된 한국인 첩보작전부대가 맥아더를 도와 인천상륙작전을 어떻게 성공시키는지를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두 축은 미국의 맥아더 장군과 X-RAY부대의 대장인 장학수이다.

영화에서 맥아더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인천상륙작전을 실행한다. 그는 인천상륙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조명 신호탄을 기다리며 “빛이 있으라”고 하는, 성경에서 세계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성경 글귀를 읊는다. 이런 그의 대사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한반도(남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시혜자의 위치에 존재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정의로운 국가’로서의 미국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맥아더는 미국이라는 현실 국가가 아닌 미국의 ‘진정한’ 정신을 나타낸다. 그는 이익을 따지는 정치가를 경멸하며, 자신이 대통령 출마의 욕심 때문에 무리한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라 여기는 사람에게 자신과 한국 소년병과의 군인으로서의 정신적 유대감을 역설한다. 그가 월미도 해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은 당시 남한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 방향이 미국의 진정한 정신에 의해 제시되는 순간으로 표상되고, 이념에 의한 싸움과 혼란은 상징적 차원에서 사라진다.

서사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은 장학수이다. 그는 본래 사회주의자였으나 이념을 위해 부르주아인 아버지를 총살할 것을 강요당하고, 결국 아버지가 친구에게 총살당하자 동지들을 쫓아 죽이고 전향하였다. 장학수는 위협을 무릅쓰고 X-RAY 작전에 자원하였는데, 이것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남한 측의 역할과 기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북한군 사령관 립계진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는데, 립계진이 사상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거리낌이 없는 성격인 데 반해

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85호, 한국영화학회, 2020, 230-231쪽.

그는 동료나 부대원과의 감정적 연대감을 소중히 여긴다. 그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자원한 이유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그의 부대원들도 역시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들로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X-RAY 부대원의 자기희생정신은 가족과 그들이 사는 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사상을 우선시하는 림계진의 태도와 대립적이다. 한편 부대원들의 태도는 사회주의 격파의 신념을 가진 맥아더와도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장학수의 인천상륙작전에서의 역할은 이중적이다. 우선 그는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는 등 독립적인 측면이 약하다. 반면 그는 자발적으로 작전에 참가했으며 인천상륙작전에서 상륙의 시작을 지시하는 신호인 조명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림계진에 의해 희생된다. 그는 죽음으로써 인천상륙작전에서의 공로를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마음에 기려야 하는 공동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영화 안에서 그 역시 맥아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전세의 전환이 되었으면서 보수적인 역사 인식에서 보자면 안정된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반석을 닦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인천상륙작전에서 미국의 시해를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당시 남한의 자발적 참여와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영화를 둘러싼 이른바 이데올로기 그 자체를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를 해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화, 소설, 웹툰, 만화책 등의 텍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해명해야 하는 문제는 ‘맥아더의 인천’을 의미화하는 방식에서 ‘인천’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이다. 예컨대 인천을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이 시행되는 지점으로 규정할 때 일종의 무대이자 배경으로 머무르

게 될 확률이 높다. 인천을 인천상륙작전의 배경으로 규정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는 텍스트 내의 ‘시선’과 ‘경관’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경관은 단지 식민주의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의식적·무의식적 훈육 기술로서 사용되고 있고, 경관은 실질적으로는 공간에 인물들을 편입시키고, 범주화하고, 훈육, 조정, 개조해 가는 권력의 전략으로서 사용²²⁾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은 곳곳에 붉은 글씨의 현수막이 붙어 있고, 피난민들과 대조를 보이며 클럽에서 술을 즐기는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땅으로 규정된다. 인민군에게 ‘오염’된 이 공간을 맥아더는 외부에서, 한국군은 내부에서 구해내겠다는 일념이 서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III. 지도와 지하실의 인천: 소설 『인천상륙작전』(2016)

문화지리학적 관점²³⁾은 『인천상륙작전』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공간으로서의 ‘인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²⁴⁾ 공간의 상상지리를 분석한다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표상의 생산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가시화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화 생산물로서의 텍스트에서 인물이 공간과 맺고 있는 관계를 적극적인

22) Sharp, Joanne P.,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권력과 재현의 공간』, 이영민·박경환 역, 여이연, 2011, 102쪽.

23) 문화지리학은 장소·공간·스케일과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생산되고 재생산되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는 문화정치 그 자체에 개입하기도 한다(Mitchell, Don, 『문화정치 문화전쟁』, 류제현 외 역, 살림, 2011, 611쪽).

24)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심상지리(imaginative geographies)’는 중요한 개념이다. 식민주의는 타자 및 타소의 표상에 관한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역학 관계를 계속 생산·재생산되기 때문이다(水内俊雄 편,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2010, 155쪽).

로 고찰함으로써, 인천이라는 공간의 심상지리가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소설 『인천상륙작전』²⁵⁾은 정태원 · 이재한 · 이만희가 쓴 영화 시나리오를 안 진홍이 소설화한 것이다. 영화와 소설은 같은 시기에 개봉 그리고 출판되었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2016년 7월 27일 개봉했고, 『인천상륙작전』의 1판 1쇄도 같은 날짜인 2016년 7월 27일 출판되었다. 내용 역시 대체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소설 『인천상륙작전』에 표상된 ‘인천’의 성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소설에서는 맥아더가 인천항 지도를 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배경은 1950년 8월 23일, 도쿄 한가운데 자리한 유엔군 사령부 6층에는 10여 명의 미군 장성이 있었는데, 이 집무실의 주인은 유엔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이다(21쪽).

맥아더는 숨을 고르고 유엔 연합군 작전 상황실을 둘러보았다. 벽면 한쪽을 차지한 인천 앞바다 지도, 그중 월미도 지도는 따로 확대 복사되어 옆에 붙어 있었다. 인천항 지도 위에는 인민군 부대 배치 현황이 제법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월미도 지도 위는 깨끗했다. 그 옆 바닷길에도 기뢰 표시는 부실했다.(85쪽)

맥아더는 8월에 한국전쟁의 현장이 아닌 일본에 있었고, 그와 유엔 연합군 작전 상황실은 전장과 분리되어 있었다.²⁶⁾ 이 장면은 맥아더에게 인천이 ‘지도 위의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인천항 지도 위에 있는 인민군 부대 배치 현황을 살펴본다. 맥아더에게 ‘인천’은 작전 수행 지점으로, 이론적 · 논리적 공

25) 안진홍, 『인천상륙작전』, 가연, 2016. 이후 본문에서의 인용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6) 이 시기 일본과 미군 기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 때 부산 부근까지 물리게 되어 매우 곤란한 싸움을 계속하던 미군에게 주일 미군 기지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전략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이다 (豊下櫨彦, 『히로히토와 맥아더』, 권혁태 역, 개마고원, 2009, 193쪽).

간이다. 실제로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 계획에 관해 연설²⁷⁾할 때 인천은 군사적 전략을 실행할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반면 텍스트 내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인물들이 느끼는 갈등과 심리적 느낌은 이러한 추상적 접근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체성을 지닌다. 예컨대 소설에서는 인천에 관해 아래와 같은 묘사가 등장한다. 인천 시내의 붉은 현수막에는 “우리는 땅을 피로 지키자!”, “미제를 몰아내고 한라산에 공화 국기를 꽂자!”(43쪽)는 문구가 필력인다. “도시 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예전과 달리 붉은색이 많”아졌다(43쪽). 7월 4일 인천은 인민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 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43쪽)었고, “비유 차이야 있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삼팔선을 기준으로 남·북인들이 뒤섞여 있었기에 도심 곳곳에 피비린내가 진동”(43쪽)했다.

텍스트 내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어둠을 밝히는 빛’, 인천은 ‘어둠’과 ‘빨갱이’의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예컨대 인천상륙작전이 시행되기 전의 인천은 “통금 10분 전, 예비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인천은 급속도로 어두워”지며, “빛은 사라지고 소리만이 돌아다”(51쪽)니는 공간이다. 그리고 ‘학수’가 “두 달 만에 인천이 완전히 빨갱이 도시가 돼버렸구나야!”(54쪽)라고 말하자 ‘봉포’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눈빛이 다 시빨개요.”(55쪽)라고 답한다. 이렇듯 인천은 빛 없는 어둠에 싸여 빨갱이 도시가 되다 못해 사람들의 눈빛마저 다 ‘시빨건’ 곳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묘사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부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며, 이는 인천상륙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대조항이라 할 것이다.

팔미도 등대에 도착한 클라크 대위가 전선을 연결하고, 캐로 부대원 진철이

27) 인천상륙작전은 ‘5,000대 1의 도박’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8월 23일, 맥아더는 콜린스 육군참모총장과 포레스트 P. 서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교 대표단 앞에서, 45분 동안 발언했다고 하는데, 그는 인천이 안고 있는 믿기 어려운 수로상의 문제와 전술적 문제를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Frank, Richard B., 『맥아더』,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15, 327-328쪽).

심지를 깨끗하게 닦자 불꽃이 켜지며 등명기는 온전한 제 빛을 내뿜었고 이내 함대의 해로를 밝히(318~319쪽)게 된다.²⁸⁾ 맥아더는 1950년 9월 15일 00시 13분, 등댓불을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드디어 인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군.”(319쪽)이라 말했고, 그의 명령대로 공격함대가 비어수로로 진입(319쪽)한다. 이와 같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상징적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이 등대의 불빛이 ‘빨갱이’를 몰아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인천상륙작전의 의미인데, 소설에서는 이와 함께 미시적인 차원에서 공간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주제 의식이 강화된다. 텍스트 내에서 KLO 부대의 이태올로기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공간적 장치로 지하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지하실은 인천시립병원에서 인민군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채선의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그들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사용하던 장소이다. 한쪽 벽면에 태극기가 붙어 있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섰을 때의 암담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삼촌 최석중은 “내가 켈로 부대 활동하느라 일 년간 집을 비운 적이 있었죠. 그때 채선이가 친구들과 사회주의 모임에 나갔다가 저 지경이 됐네요.”(146~147쪽)라며 현재 인민군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채선의 변모를 걱정한다. 이때 한채선은 사회주의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묘사된다. 한채선의 부모님은 일본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147쪽)고, 이 사실은 한 채선이 인민군 간호사로 일하는 현재의 과오를 청산하고 켈로 부대에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지하실이라는 공간은 장학수와 최석중의 ‘켈로 부대’의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활동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이 연속성으로 인해 장학수와 최석중은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텍스트 내에서 정식 명칭이 KLO(Korea Liaison Office), 미 극동사령부 주한 연락처인 켈로

28) 클라크 대위가 팔미도의 등대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정보를 무선으로 보고하자, 기동부대 지휘부가 9월 14일 자정에 등대에 불을 켜라고 지시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Rottman, Gordon L., 앞의 책, 89-90쪽).

부대²⁹⁾는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미군이 병력을 철수하면서 북 병력의 증감 및 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립한 북과 공작 첩보부대였고, 적 후방에 침투해 교란작전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요원의 상당수가 이북 출신인 것이 특이했다(52쪽)고 소설에서는 서술되어 있다.

켈로 부대가 인천상륙작전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장학수라는 인물이다. 그의 고향은 인천이지만 그는 북한 말투를 사용한다. 장학수가 한채선에게 담담하게 “내래 고향이 인천입네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채선은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장학수는 다시 “아, 죄송해요. 습관이 돼서 그만…….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는 “나도 한때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인천이 고향인 장학수는 한때 공산주의자였다가, 아버지의 총살이라는 사건을 겪은 후 켈로 부대원이 되었다. 고향이 인천인 장학수가 이북 사투리를 써야 하는 것은 그가 인민군으로 위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출신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인민군이었던 자신의 전향의 계기를 한채선에게 털어놓는다. “자기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모처럼 꺼냈는지 멈출 수가 없었”(151~152쪽)던 것이다. 그의 전향은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는 행위로 인천상륙작전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잘못된 사상적 침범을 바로잡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독립운동가의 딸이지만 ‘잘못된 사상’에 오염된 인민군 간호사인 한채선은 장학수의 이북 사투리를 문제 삼는다. 이 지역에 기반한 정체성과 언어의 변주는 한채선과 장학수라는 두 인물과 인천의 관계를 복잡하게 구성하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텍스트의 결말에서 장학수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숭고한 국군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회개한 한채선은 국군의 전장에 자원하여 나갔다가 장학수의 죽음을 목도한다. 인천이 고향인 장학수,

29) 비밀 정보기관을 설립, 반도호텔 202호실에 사무실을 차렸고, 그 사무실 입구에는 ‘미 국 동국사령부 주한연락처’ 약칭 KLO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위장했다고 한다(이창진, 『KLO의 한국전 비사』, 지성사, 1993, 35쪽).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부모와 함께 인천에 살던 한채선이 희생과 의지로 인천을 지켜냈다는 것은,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맥아더에게 인천이 지도 위의 지점이자 작전지였다면 장학수와 최석중, 한채선 등에게는 역사의 정통성 아래 피를 흘려 탈환하고 ‘빨갱이’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공간이었다. 이 긴급하고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결단이야말로 애국주의³⁰⁾의 기원이 되는 향토에 대한 애착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단은 근대적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전장에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인천이라는 도시를 탈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IV. 파괴된 고향으로서의 인천: 웹툰과 단행본(2013~2014)

윤태호의 웹툰 〈인천상륙작전〉은 2013년 한겨레신문에서 연재를 완료한 후, 네이트, 티플레이 등의 사이트에서 완결작이 공개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2015년에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다음 웹툰에서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10월 9일까지 완결까지 71화가 연재되었다. 다음 웹툰에서 약 3,850만 뷰와 별점 9.9점(10점 만점)을 달성하였다.(2020년 12월 1일 기준)

〈인천상륙작전〉은 광복 이후 역사의 흐름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적 서술과 전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중 중심의 드라마 전개를 병치하여 전개³¹⁾하고 있다. 해방 직후에서 인천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역사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

30) 애국주의는 ‘아버지의 땅’ 혹은 태어난 땅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고대에는 애국심이 엄밀하게는 지역감정이었다(Tuan, Yi-fu, 『토포필리아』, 이옥진 역, 예코리브르, 2011, 156쪽).

31) 박기수, 「윤태호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47, 인문콘텐츠학회, 2017, 99쪽.

여 같은 시기 소시민인 철구의 가족이 겪는 비극적인 굴곡들을 그리고 있다. 본격적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인천해방작전〉은 웹툰으로 다루기에는 무거운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와 청소년이 주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회 수를 획득하는 한편 평점과 관련해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이는 〈인천상륙작전〉이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웹툰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역사적 흐름과, 철구 가족 중심 서사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웹툰의 이중구조는 당시 소시민인 철구 가족으로서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제적·국내적 정세에 따라 그들의 삶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의 문화담론에서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구원이자 남한의 승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텍스트 안에서는 인천을 고향으로 하는 철구의 가족에게 비극적 변화를 안겨 주는 요소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철구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죽게 되고 혼자 살아남은 철구는 고아가 된다. 철구는 결국 미군에게 구원받아 미국으로 입양 가게 된다. 철구 가족은 본래 인천이 고향이지만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야 했고 전쟁을 피해 돌아온 고향 인천에서도 전쟁의 비극을 피하기는커녕 개인들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폭력에 희생되고 만다. 이와 같은 철구 가족의 모습에서 거친 현대사에 휩쓸린 한국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사적인 역사 제시와 픽션인 미시사 사이의 간극을 강조하는 이중구조를 통해 독자는 〈인천상륙작전〉으로 표상되는 한국전쟁 당시의 한국 현대사를 더욱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웹툰을 단행본으로 묶은 『인천상륙작전』은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별로 다루어진 시기를 정리해 보면 1권은 1940년부터 1945년 11월 23일까지를 다루고 있다.³²⁾ 이어서 2권은 1945년 10월 15일부터 1947년 7월 19일까지를,³³⁾ 3권

32)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1: 해방과 혼란』, 한겨레출판, 2013, 224쪽.

33)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2: 잔인한 여름』, 한겨레출판, 2013, 224-225쪽.

은 1947년 7월 19일부터 1950년 6월 7일까지를,³⁴⁾ 4권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7월 26일까지를,³⁵⁾ 5권은 1950년 6월 29일부터 1950년 9월 16일 1시 30분까지를,³⁶⁾ 마지막으로 6권은 1950년 9월 16일부터 1951년 1월 4일까지를 다루고 있다.³⁷⁾

각 권별로 소제목이 제시되어 있고, 미주를 통해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가 실려 있다. 또한 만화와 별개로 ‘한눈에 보는 역사연표: 대한민국 vs 철구네’를 제시하고, 구원회의 해설을 권마다 배치한 후 ‘참고한 책과 자료’를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로 인해 웹툰 〈인천상륙작전〉과 종이 책 『인천상륙작전』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단행본은 ‘만화’ 책이면서 동시에 역사서나 학습서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천상륙작전’의 개시일인 9월 15일은 5권의 말미에 등장하고, 6권은 작전 수행일 바로 다음 날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이 텍스트의 표제는 엄밀히 말해 5권 일부와 6권의 내용에만 해당된다면, 1940년대부터 시작된 1권에서 5권에 이르는 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비대칭성이 곧 서사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이 텍스트의 표제는 ‘해방 전후’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더 정직하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 윤태호가 ‘인천상륙작전’에 이르는 이 지난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 이 표제가 ‘해방’에서 ‘인천상륙작전’에 이르는 기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사유해야 한다는 전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해방을 맞이한 서울에서 철구가족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생계를 이으며 그 시기를 건넌다. 그 후 전쟁의 발발로 인해 모든 가족이 흩어졌다가 고향인 인천으로 다시

34)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3: 극단의 시대』, 한겨레출판, 2014, 226-227쪽.

35)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4: 전쟁의 시작』, 한겨레출판, 2014, 242-243쪽.

36)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5: 팔미도의 밤』, 한겨레출판, 2014, 206-207쪽.

37) 윤태호, 『인천상륙작전 6: 아비규환』, 한겨레출판, 2014, 206-207쪽.

돌아온다는 설정은, 독자로 하여금 이 ‘주인공’ 가족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은 독자의 기대에 따라 전개되지 않는다.

철구 아버지 상근과 삼촌 상배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피난길에 오른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은 고향 인천으로 모인다.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업부터 생활방식까지 여러 번 바뀌 가며 뛰어난 적응력과 생활력을 보여주었던 철구의 삼촌은, 고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미군의 공습으로 인천에서 목숨을 잃는다.³⁸⁾ 철구의 외할아버지도 상배와 부인을 장사지내고 이틀간 굶은 채로 죽고 만다.

또 생활력은 없지만 해방 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던 철구의 아버지 상근은 한강 다리에서 피난을 가다 포격을 당해 팔과 다리를 잃는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가 연합군의 만행으로 잘렸다면 인민군을 위해 선전활동을 한다. 인천에서 서로 재회한 철구 가족은 인천에서의 행적을 지우기 위해 서울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천에서의 철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던 행인이 “인민군 선동하던 빨갱이가 거지 모양으로 숨어 있다!”(6권: 136쪽)고 외치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동생 상배와 함께 일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러나 그 직후 이번에는 상근을 “반동 새끼”(6권: 168)이며 변절자라 비난하는 인물의 공격을 받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한편 이 인물 역시 바로 “인민군 공출에 앞선 녀석”,

38) 이선미는 상배의 삶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웹툰 〈인천상륙작전〉은 이 공고한 냉전 관념의 틈을 비집고 새로 발견된 사실(fact)을 퍼즐처럼 끼워 맞추어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의 기억을 바꾼다. 한국전쟁을 승리로 전환시킨 최고의 전투 ‘인천상륙작전’은, 환도한 정부가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을 적과 구분하기 위해 실시한 ‘부역자 처벌’과 상륙을 위해 시도되었던 엄청난 ‘미공군의 공중폭격’ 사실들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해방이라는 혼란의 시기에 친일부역자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 안간힘 쓰며 살다가 월미도 공중폭격으로 생으로(원: 인용자) 마감하는 상배의 삶은, 인천상륙작전의 총체적 실상을 구성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인천상륙작전의 공식 기억이 내비치지 않은 그 역사적 사건의 ‘그늘’일 수 있을 것이다”(이선미, 「인천상륙작전과 냉전문학의 좌표: 전쟁신화와 사실(fact)의 관계—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430쪽).

“빨갱이 악질 새끼”(6권: 173쪽)라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다.

철구 가족은 전쟁이 나자 서울에서 고향 인천으로 피난을 가지만 그곳에서 삼촌과 할머니는 죽고 나머지 가족은 쫓겨나며, 철구 아버지는 인천에서 가족과 재회하지만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서울로 도망간다. 인천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철구 가족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철구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두 목숨을 잃고 철구 한 명만 살아남게 된다. 서울로 도망 온 철구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좌익과 우익이 서로 고발하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보복의 고리를 목격한다. 철구는 더는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군을 따라 출국하는 것으로 철구 가족의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이런 서사는 결국 해방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이르는 기간은 소시민인 철구 가족에게는 비극의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편 인천은 전쟁이 야기한 민족적 비극의 장소로 그려진다. 인천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폐허로 변한 인천 시가지 곳곳엔 북한군이 벗어놓고 간 군복이 버려져 있었”(6권: 35쪽)고, “빛 하나 없는 밤이면 아군, 적군, 군인, 민간인 구분이 불가능해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6권: 38쪽). 인천상륙작전의 다면적 성격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전쟁 중에 인천은 해방구였으며 천국이자 지옥이었다”(6권: 38쪽)는 것이 그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승리였다는 점에서 인천이 해방구이자 천국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천이 지옥이었던 이유는 현대전이 아군의 죽음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서 상대편 지역을 초토화하는 전략을 쓴다³⁹⁾는 것, 그리고 인천은 ‘아군’과 ‘적군’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영화 〈인천상륙작전〉, 소설 『인천상륙작전』과 윤태호의 웹툰 및 단행본 『인천상륙작전』이 가장 대조적인 부분이 인천이 고향인 철구 가족이 겪는 재난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구의 삼촌과

39) 박태균, 앞의 책, 17쪽.

할머니가 미군의 공습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설정은 인천상륙작전의 지극히 어두운 측면을 부각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관한 기억은 미군의 폭격을 둘러싼 기억을 지울 만큼 강력했다.⁴⁰⁾ 게다가 역사에서 ‘주변인’으로서 전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억들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도 못한 채 단절되어버리기도⁴¹⁾ 하기 때문에 철구 삼촌과 같이 인천상륙작전 중 포격에 의한 민간인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늦게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9월 15일의 승리를 기억하는 한편 9월 10일 월미도 포격으로 인한 ‘학살’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⁴²⁾는 요청은 인천상륙작전이 단지 축하해야 할 승리의 기억으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인천은 중요한 곳이었다. 인천은 신미양요, 제물포의 개항, 러일전쟁과 청일전쟁의 현장으로서 역사의 기록보존소⁴³⁾이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전세를 일거에 뒤바꾼 곳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도시는 단연 ‘인천’⁴⁴⁾일 것이다. 인천의 자유공원은 맥아더 동상으로 대표되며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맞물려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기도 하다.⁴⁵⁾

40) 1950년 9월 10일 새벽, 인천상륙작전의 사전예방작전으로 이루어진 미군 해병대 함대기들의 월미도 원주민 어촌마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다. 인천상륙작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 폭격사건은 그간 신화화된 인천상륙작전의 압도적 기억에 의해 가려져 잊혀졌다가 2008년 2월 26일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약칭) 제66차 전원회의에서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57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이회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제68호, 새얼문화재단, 2010, 246쪽).

41) 박정석, 「전장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체험」, 김경학 외, 『전쟁과 기억: 마을공동체의 생애사』, 한울아카데미, 2005, 115쪽.

42)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은 9월 10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 해병들이 인천항에 상륙한 것은 9월 15일입니다. 국가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사건을 9월 15일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9월 15일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9월 10일의 ‘학살’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승리는 기념하는 사람들은 9월 10일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월미도 민간인들의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강변구,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작은 섬 월미도가 겪은 큰 전쟁들」, 『서해문집』, 2018, 287-288쪽).

43) 김창수, 「인천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인천학의 탐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9쪽.

44)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세계사를 바꾼 인천의 전쟁』, 다인아트, 2012, 322쪽.

45) 백철현 · 김계원, 앞의 글, 125쪽.

그렇다면 윤태호의 웹툰 <인천상륙작전>과 단행본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인천의 역사적 의미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일까. 웹툰 <인천상륙작전> 혹은 단행본 『인천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묘사하는 것’과 ‘폭격과 공습을 증언하는 것’ 사이에서 단 하나만을 선택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후방의 정치로서의 전쟁의 성격⁴⁶⁾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인천 시민이 겪은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다루었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영화 <인천상륙작전>, 소설 『인천상륙작전』, 웹툰 <인천상륙작전>, 만화책 『인천상륙작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텍스트에 나타난 ‘인천’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소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혼란에서 벗어나 기틀을 다졌다는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 궤로 부대의 활약을 통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천상륙작전에서의 공헌을 상징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순적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은 이 두 가지 욕망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는 중층 공간으로 나타난다. 한편 웹툰에서는 해방 이후의 거시사적인 역사 전개와 미시사적인 철구 가족의 굴곡이 이중적으로 드러난다. 철구 가족은 가난 때문에 고향인 인천을 떠나 서울에서 지내다가 전쟁을 피해 고향인 인천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철구 가족은 고향인 인천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삶이 파괴당하고,

46) 한국전쟁 당시의 정치와 사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피난의 정치’, ‘희생양의 정치’, ‘무책임의 정치’, ‘부역자 처벌의 정치’, ‘학살의 정치’로 집약될 수 있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5, 296쪽).

결국 철구는 고아가 되고 만다. 이러한 웹툰의 내용은 인천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의 삶이 식민지 지배에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파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만화 단행본에서는 두꺼운 연표를 뒤에 제시하여 역사책과 같은 성격이 가미되었다. 또 인천에 돌아간 철구의 가족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 전쟁을 통해 고향을 잃은 인천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룬 텍스트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천상륙작전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도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지 하는 사안을 둘러싼 비교적 최근의 논쟁은 그 인천상륙작전의 재의미화에 대한 현재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자유공원’의 가장 높고 큰 상징물은 맥아더 동상과 한미수교탑⁴⁷⁾이다. 우리는 흔적의 지속적인 구성물(ongoing composition of traces)이라는 관점⁴⁸⁾을 가지고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맥아더 동상의 철거에 관한 의견은 정치색에 따라 또 세대에 따라 나뉜다. 오늘날 맥아더 동상이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세대 간 갈등의 시금석⁴⁹⁾이 되고 있다면, 맥아더라는 상징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 그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맥아더의 영웅성의 배경으로 치환되는 일련의 사유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천에서 일어났던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 신성희, 「기억할 만한 ‘과거’와 보여주려는 ‘장소’의 선택」, 문화의 창 총서 편집위원회, 『만국공원의 기억』, 인천문화재단, 2006, 225쪽.

48) Anderson, Jon, 『문화·장소·흔적—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이영민·이종희 역, 한울, 2013, 17쪽.

49) 김진웅, 앞의 글, 451쪽.

〈참고문헌〉

〈대상텍스트〉

〈인천상륙작전〉, 이재한, 2016.

안진홍, 『인천상륙작전』, 가연, 2016.

윤대호, 『인천상륙작전 1: 해방과 혼란』, 한겨레출판, 2013.

_____, 『인천상륙작전 2: 잔인한 여름』, 한겨레출판, 2013.

_____, 『인천상륙작전 3: 극단의 시대』, 한겨레출판, 2014.

_____, 『인천상륙작전 4: 전쟁의 시작』, 한겨레출판, 2014.

_____, 『인천상륙작전 5: 팔미도의 밤』, 한겨레출판, 2014.

_____, 『인천상륙작전 6: 아비규환』, 한겨레출판, 2014.

_____, 다음웹툰, 2017.2.2.-2017.10.9., 〈인천상륙작전〉1-71화,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operation#pageNo=3&sort=asc&type=>, (2020년 10월 22일-2020년 10월 24일).

〈국내 논저〉

강변구, 「그 섬이 들려준 평화 이야기—작은 섬 월미도가 겪은 큰 전쟁들」, 『서해문집』, 2018.

강성률,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남한, 북한, 한미 합작영화의 비교 연구: 전쟁 양상 재현과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제85호, 한국영화학회, 2020.

경인일보 특별취재팀, 『세계사를 바꾼 인천의 전쟁』, 다인아트, 2012.

김남혁, 「데탕트 이후 영화의 한국전쟁 재현 양상에 대한 연구-더글라스 맥아더 혹은 인천상륙작전 관련 남한, 북한, 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74, 한국비평문학회, 2019.

김동춘,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5.

김진웅, 「맥아더 장군의 제2의 인천 상륙 작전: 동상을 둘러싼 분쟁의

- 함의」, 『역사교육논집』 39권, 역사교육학회, 2007.
- 김창수, 「인천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인천학의 탐구』,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 김호연, 「대중영상매체를 통해 나타난 인천의 이미지 그리고 문화콘텐츠」, 『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4.
- 박기수, 「윤태호 웹툰의 스토리텔링 전략 연구」, 『인문콘텐츠』 47, 인문콘텐츠학회, 2017.
- 박정석, 「전장의 공간에서 ‘주변인’으로서의 전쟁체험」, 김정학 외, 『전쟁과 기억: 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아카데미, 2005.
- 박태균, 『한국전쟁』, 책과함께, 2005.
- 백철현 · 김계원, 「영상매체 속에 비쳐진 인천이미지를 통해 본 인천의 정체성 연구」, 『인천학연구』 2(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 신성희, 「기억할 만한 ‘과거’와 보여주려는 ‘장소’의 선택」, 문화의 창총서 편집위원회, 『만국공원의 기억』, 인천문화재단, 2006.
- 오양호, 「문학 속의 인천 심상, 그 문학지리학적 접근(2)」,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 _____, 「상처받은 항구도시의 후일담—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나는 ‘인천’」, 『인천학연구』 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 _____, 「인천학(仁川學)의 ‘문학지리학’적 접근」, 『인천학연구』 17,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2.
- _____. 양승모, 「한국 현대 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인천」, 『인천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 이선미, 「인천상륙작전과 냉전문학의 좌표: 전쟁신화와 사실(fact)의 관계—윤태호의 『인천상륙작전』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79,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 이창건, 『KIO의 한국전 비사』, 지성사, 1993.

- 이현식, 「대중문화에 나타난 인천 이미지 연구」, 『인천학연구』 3, 인천 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4.
- 이희환, 「인천상륙작전에 가려진 월미도 원주민들의 아픔」, 『황해문화』 제68호, 새얼문화재단, 2010.
- 장윤정, 「인천상륙작전 영화에 표현된 장소 재현」, 『대한지리학회지』 제 49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2014.
- 주치호, 『인천상륙작전祕史』, 오렌지연필, 2016.
- 최원식, 「자유공원을 다시 계획하자!」, 『황해에 부는 바람』, 다인아트, 2005.

〈번역서〉

- 豊下櫓彦, 『히로히토와 맥아더』, 권혁태 역, 개마고원, 2009.
- 水内俊雄 편, 『공간의 정치지리』, 심정보 역, 푸른길, 2010.
- Anderson, Jon, 『문화 · 장소 · 흔적—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이영민 · 이 중희 역, 한울, 2013.
- Frank, Richard B., 『맥아더』,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15.
- Kellner, Douglas, 『미디어 문화』, 김수정 · 정종희 역, 새물결, 2003.
- Mitchell, Don, 『문화정치 문화전쟁』, 류제헌 외 역, 살림, 2011.
- Rottman, Gordon L., 『인천 1950—한국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20세기 마지막 대규모 상륙작전』,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06.
- Schaller, Michael, 『더글러스 맥아더』, 유강은 역, 이매진, 2004.
- Sharp, Joanne P.,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권력과 재현의 공간』, 이영민 · 박경환 역, 여이연, 2011.
- Tuan, Yi-fu, 『토포필리아』, 이옥진 역, 에코리브르, 2011.

〈국문초록〉

‘인천상륙작전’의 매체별 재현 양상으로 본 인천의 장소성 연구

이은선 · 우정덕

이 연구에서는 2013-2016년 사이에 각각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된 네 가지 텍스트를 통해 인천의 장소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텍스트는 웹툰 〈인천상륙작전〉(2013), 만화 단행본 『인천상륙작전』(2013-2014), 그리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이재한, 2016), 소설 『인천상륙작전』(2016)이다.

소설과 영화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대한민국의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자 맥아더로 상징되는 미국에 의한 시혜라고 본다. 동시에 켈로 부대원인 주인공 장학수의 활약과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에 남한 사람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것도 강조하면서 인천을 중층적인 공간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중층적 공간이 의미하는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가지는 역사적 승리가 미국의 시혜임을 인정하는 것임과 함께 거기에는 한국인의 결정적인 기여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텍스트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서의 승리에 대한 한국인의 기여는 역사적 정신적 정통성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웹툰과 만화 단행본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인천상륙작전까지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그 역사의 풍랑에 비극을 겪는 철구네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이중적 구조를 택한다. (특히 단행본에서는 역사서와 같은 성격이 더욱 강조된다.) 웹툰과 만화 단행본에서는 인천을 고향으로 하는 철구 가족이 고향에서 안주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고향인 인천에서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포격으로 죽는 등 역사의 격랑에 휘말려 철구만 제외하고 모두 죽는 비극을 보여준다. 이는 인천

상륙작전 중에 많은 민간인이 죽고 고통을 당한 땅으로서의 인천을 제시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연관된 인천의 장소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두 텍스트는 인천상륙작전을 단지 승리의 기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이 인천에 살고 있던 사람들 나아가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다주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다.

위의 네 텍스트는 현재 우리가 인천상륙작전과 인천을 바라보려고 하는 역사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대체로 대중적으로 성공한 텍스트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문화 수용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재현, 장소성, 문화지리학, 맥아더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Operation Chromite’ and the placeness of Incheon

Lee Eun-seon & Woo Jeong-deok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Incheon's placeness through four texts published in different media between 2013 and 2016. The target texts are the webtoon Operation Chromite (2013), the cartoon book Operation Chromite (2013-2014), the movie Operation Chromite (Jae-han, Lee, 2016), novel Operation Chromite (2016).

In this novel and this movie, the Operation Chromite is viewed as an event that becomes the touchston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avor from the United States symbolized by MacArthur. At the same time, it reveals Incheon as a multi-layered space, emphasizing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were active in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main character, Jang Hak-soo.

On the other hand, in this webtoon and this comic book, a dual structure is used to deal with the history and story of the Cheol-gu's family who suffers tragedy from the storm of history along with the time from liberation to the Operation Chromite.

In this webtoon and this comic book show the tragedy that the Cheol-gu's family, whose hometown is Incheon, cannot settle down in their hometown.

But also dies from the shelling of the Cheol-gu in their hometown, Incheon. And dies from storm of history except for Cheol-gu, the only child of the family. This suggests Incheon as a land where many civilians died and suffered during the Operation Chromite. And demands a new awareness of the placeness of Incheon that is related to the Operation Chromite.

Key words : Operation Chromite, Representation, Placeness, Cultural geography, MacArthur